

광주 공공건축물 따로따로 관행 개선

시, 기획부터 전문가 의견 개진... 잦은 설계변경 문제 없게 설계 공모 심사, 투표+채점제로... 기능성 부문 배점 확대

광주시가 공공건축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 기획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건립 절차는 건축기획 단계, 설계·공사 단계,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돼 있다.

건축기획은 입지 선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결정, 발주방식 및 공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 주관 부서가 맡고 있다. 설계·시공은 건설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본부가, 유지관리는 공공건축물 건립 후 운영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이처럼 공공건축물 건립의 시작점인 건축 기획 단계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사업 주관 부서가 맡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을 비롯한 예산

성, 기능성, 편리성 부분 등에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발생하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건축물은 사·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역의 만족도 등도 중요 건립요소 중 하나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심미성은 물론 기능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건축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건축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경우 적정 사업비, 설계 및 공사 기간의 적정성, 발주 방식 등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잦은 설계변경 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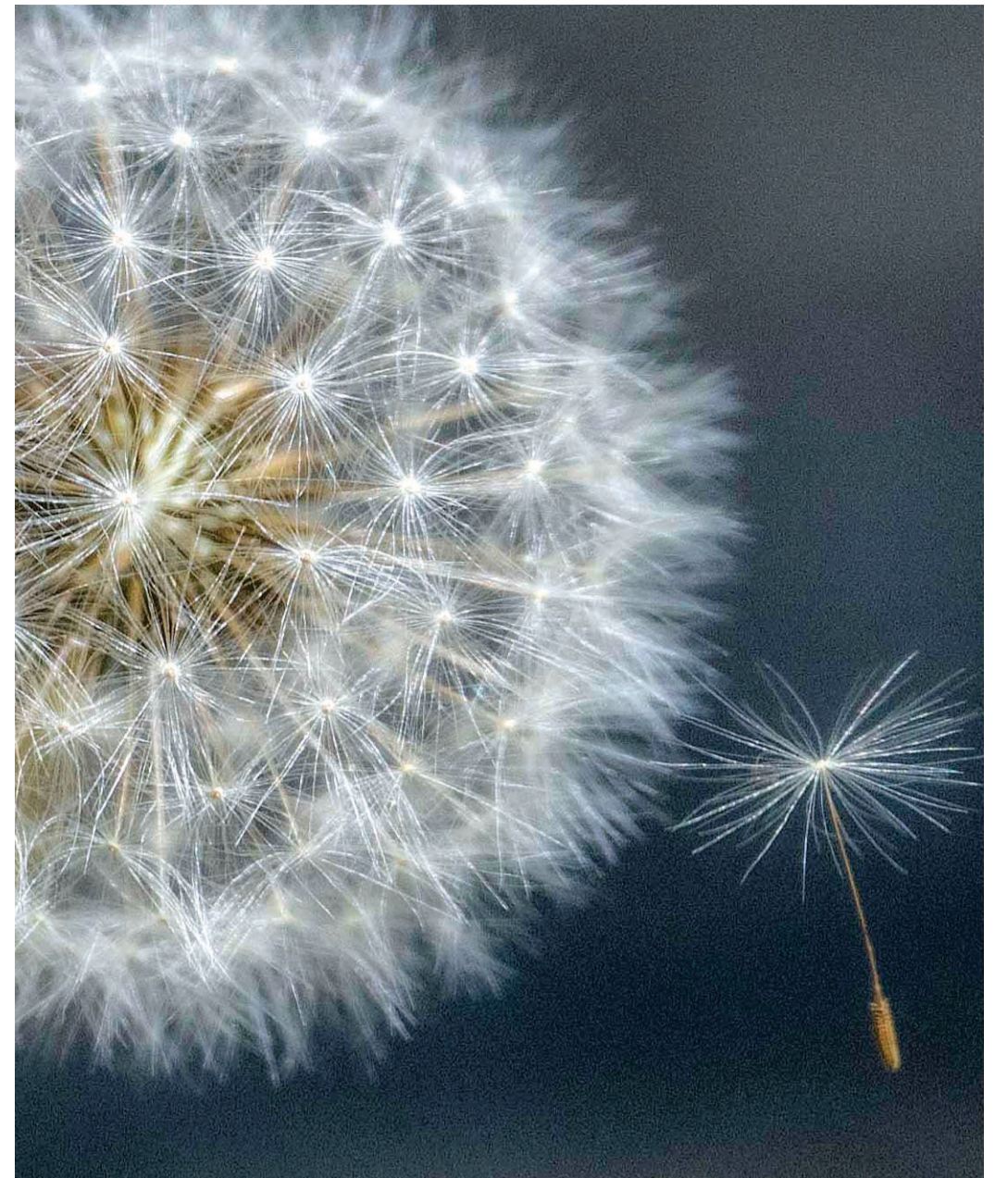
하고 있다.

시는 또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의 설계공모 심사 방식도 개선해 기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설계 공모 심사 방식인 토론을 통한 투표제에서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디자인 위주 설계가 아닌 기능성 부문의 배점을 적용한 채점제 추가에 따라 설계의 기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건립사업 예산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시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예산의 불용 방지와 충분한 설계 및 공사 기간 확보로 부실 설계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시민 일상의 많은 부분이 공공건축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종합개선 대책으로 예술성이 높고 기능성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들레 훌쩍 바람 타고 훨훨~ 3일 오전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산책로에 핀 민들레에서 훌쩍가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통합공항 이전 무안군민 설득 속도전

이달까지 순회 홍보... 다음달 비전 토론회서 지원 계획 등 발표

광주시가 민간·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민 설득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달 내로 9개 읍면 순회 홍보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가장 무안군 미래 비전 토론회를 열고 현실성 있는 대규모 지원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일 일로읍, 13일 삼향면, 21일 해례면, 26일 운남면, 27일 몽탄면, 28일 정계면을 방문해 장터, 상가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미 캠페인을 마친 무안읍과 망운면, 이날 진행된 현경면까지 포함하면, 이달 말까지 무안 9개

읍·면 순회 캠페인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무안 일로읍 장터를 찾아 무안 군민을 만날 예정이다. 일로읍은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는 무안국제공항과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에 해당하는 데도, 무안 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다만 군공항 이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무안군이 최근 '농번기인 만큼 방문을 피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점을 고려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를 병행한 캠페인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순회 캠페인을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전남도 등과 함께 가장 '무안군 비전 토론회'를 열고 민간·군 공항 무안 이전 지원 방안, 공항도시 무안 발전 지원책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비전 토론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구상 중인 현실적인 지원책을 통합 공개하는 방식으로, 무안 군민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강기정 시장은 "막연한 우려는 해소하고,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면서 "무안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께서도 상생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 카페·맛집에서 '쉬다가게'

핫플 64곳 정보 제공... 가이드북·누리집 신설 등 안내 서비스 인기

전남도가 지난 2022년부터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지정 운영한 민간관광안내소 '쉬다가게'가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가 지정한 민간관광안내소는 64곳이다. 기존 관광안내소의 운영 시간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도록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 인근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민간 영역과 공동으로 관광 안내 기능을 하고 있다.

2022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 사업은 '정경, 힐링 전남 쉬다가게'라는 현안을 내걸고, 진열대에 관광안내 책자와 지도, 홍보물 등을 비치해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의 여행 정보를 안내받도록 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브랜드 사업 추진에 맞춰, 관광객에게 한층 더 높은 접근성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관

광안내소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또 지역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를 추천하는 등 민간관광안내소 방문객 누구나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받도록 누리집 신설을 추진 중이다.

민간관광안내소 누리집은 7월 중 오픈 예정으로,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목포 민간관광안내소로 지정된 춘화당의 안치운 대표는 "민간관광안내소로 지정된 후 여행 정보를 문의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 덕분에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전남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 내정

시의회, 14일 인사청문회

광주그린카진흥원 제7대 원장에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내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린카진흥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추천한 2명 후보 중 김 전 원장을 신임 그린카진흥원 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전 원장은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인

사청문회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까지 얻으면 7월 초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시 미래 차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한국과총 과학기술발전 상생 협약

전남도는 3일 김영록 전남지사,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과학기술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과학기술을 통한 인구 감소 및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지역 미래성장 동력 선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공태양연구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 대형 연구개발 기반시설 확

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민 대상 과학특강 및 과학기술 전문 포럼 공동 개최 등의 경우 즉시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국과총과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멘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총은 과학기술단체 육성·지원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촉진을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된 단체로, 402개 학술단체를 포함한 총 612개 회원단체가 가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SUN CHEON
순천시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순천시의회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이성기 조합장
순천상공회의소 이흥우 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오병동 주암댐지사장